부산상공회의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5년 4월 7일(월) 14:00 이후

담 당 : 전략사업팀 김형규 팀장
(990-7046)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전국 권역별 합동 토론회 개최

산업은행 부산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전국적 공감대 확산

▶ **부산상의, 국민동의청원 성공 후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회부에 따른 후속 조치**
▶ **영호남·충청·제주 등 권역별 시민사회, 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공동 성명발표**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7일(월) 14시, 상의홀에서 (사)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과 공동으로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전국 권역별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출발점이라는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주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은 목표인 5만 명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지난달 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오늘 행사에는 부산을 비롯한 영남,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 각 지역 시민사회 단체 대표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 시민단체 대표의 공동성명서 서명 및 낭독,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의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권역별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첫 출발점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라고 명확히 선언하면서, 산업은행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이전이 부산을 넘어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지방위기를 극복할 전략적 차원에서 단순히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전국 시민사회의 연대와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수도권은 과밀화로 고통 받고 있다” 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함께 공론화시키고, 조속한 추진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청해야할 때” 라고 강조했다.

부산상의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시금석 -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 전국 권역별 합동 토론회 개최(안)

부산상의가 주도한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계기**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영남권, 호남권, 제주, 충청권 등 각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의**를 다지고자 함

1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5. 4. 7.(월) 14:00~15:30, 부산상의 상의홀

○ 참석대상 : 100여명(회장, 부산경남, 충청,영남,호남,제주권 시민단체 대표, 지역시민 등)

○ 주요내용 : 인사말씀, 성명서 발표,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등

○ 공동주최 : 부산상공회의소, (사)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

2 세부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3	3'	○ 개회 및 국민의례	진행: 사회
14:03~14:06	3'	○ 행사취지 및 내빈소개	이지후 이사장 (사)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
14:06~14:09	3'	○ 개회사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14:09~14:19	10'	○ 격려사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영상)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영상)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정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14:19~14:24	5'	○ 공동성명서 낭독 및 서명	각 대표
14:24~14:29	5'	○ 퍼포먼스	전원 피켓팅(전원기념촬영)
14:29~14:49	20'	○ 발제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 주제: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14:49~15:24	35'	○ 토론회(각 5분)	좌장: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토론) 1.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 2.이민원 전남시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 3.신대운 (사)분권자치연구소 이사장 4.박노찬 전국자치분권연대 사무차장 5.이지후 (사)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 이사장
15:24~15:29	5'	○ 질의응답	
15:29~15:30	1'	○ 폐회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시금석,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제주 부산 권역별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지역민들은 ‘제2차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도, 현 정부도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에 끝내 응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희망고문만을 반복하며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며,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역대 대선에서 빠짐없이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과제가 여전히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산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은행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국민청원 또한 짧은 기간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는 지역의 염원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제2차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으로서,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산업은행 본사 이전은 단지 부산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호남권·영남권·충청권·제주·부산의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결의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출발점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다!”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뜻에 한 마음으로 서명합니다.

2025년 4월 7일 월요일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제주 부산 권역별 시민사회단체